

01 교회소식

이스라엘 목회자가 본 만민중앙교회

드미트리 페트로프스키 목사는 우리 교회를 방문해 열정적인 기도,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다.

02 생명의 말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라

사르밧 과부는 상대를 위해 베풀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엘리야 말대로 순종해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

03 기획특집

왜 동문서답을 할까?

대부분 진실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동문서답.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본다.

04 간증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들의 농가진을 하나님께 치료받았다는 이유미 집사의 간증과 미국 NRB 네트워크 방송사 트로이 밀러 사장과 인터뷰.

# 만민뉴스

제537호 2012년 6월 1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이스라엘에 보급하고 싶습니다”

### 우리 교회를 방문한 이스라엘 드미트리 페트로프스키 목사



이스라엘 크리스탈포럼의 드미트리 페트로프스키 음악 목사가 만민의 사역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그는 10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만나 축복기도를 받았으며(①, 통역 손영락 집사), 주일 저녁예배 시 특송했다(②). 이스라엘 목회자들을 더욱 하나 되게 해주는 크리스탈포럼의 연례행사 '2012 찬양 페스티벌'(③)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목도한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④).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의 행사 디렉터 드미트리 페트로프스키 목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2012 찬양 페스티벌'에 한국 공연팀을 보내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인사와 함께 만민 사역을 체험하기 위해서이다.

피아니스트, 작곡가 겸 연출가이자 유명 복음 가수인 그를 지난 6월 11일 만났다. 전날 주일 저녁예배 특송 시, 성도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살롬, 살롬”을 외치며 함께 찬양한 감동의 여운 때문인지 그의 얼굴에는 은혜의 빛이 넘쳐흘렀다.

#### ◆ 우리 교회 방문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민중앙교회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 불같은 기도, 아름다운 찬양 문화 등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라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열정적인 기도와 각자 맡은 사명에 헌신하는 모습, 예능팀들의 수준 높은 공연도 놀랐습니다. 공연 하나하나가 수많은 연습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특히 닛시오케스트라 연주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차후에 제가 작곡한 곡으로 닛시오케스트라와 협연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 ◆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간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벨로루시에 살고 있었는데, 2009년 초 아내의 양쪽 폐 사이에 악성림프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던 중 “이스라엘로 가라”는 응답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온 뒤 나사렛 생령교회(담임 세르게이 보차르니코프 목사)에 출석하게 됐고, 그때부터 크리스탈포럼과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한국에서 오신 이재록 목사의 세미나에 참석해 기도받은 뒤 급속도로 치료됐고, 그 후 임신까지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상태에서 임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지요. 하지만 저희는 치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순산했습니다. 작년 10월 병원을 찾은 아내는 완치돼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참석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9년 9월, 예루살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스라엘 연합대성회에서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많은 사람이 치료와 응답받는 것, 그리고 천국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공연을 보았습니다. 또 성회를 전 세계

로 생중계하는 훌륭한 시스템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이 행하신 3년간의 이스라엘 사역과 연합대성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의 열매로 크리스탈포럼이 결성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이재록 목사님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 ◆ 직접 연출한 '2012 찬양 페스티벌'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5월, 라트론 미니이스라엘에서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2 찬양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니즘(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매우 놀랐지요. 이 행사를 통해 크리스천의 위상이 높아졌고,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더욱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만민 찬양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만민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누리고 계시는데요. 그 중 하나가 만민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만민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

다. 만민 찬양은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음악을 전공한 저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에 감탄했고, 가사 또한 은혜로웠습니다. 이 귀한 하늘 양식을 이스라엘에 보급하고 싶습니다.

#### ◆ 만민 찬양 보급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요?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영어판 만민 찬양을 러시아어와 히브리어로 번역해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만민중앙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결 복음과 하나님 권능을 전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민의 공연팀을 초청해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뮤지컬을 제작하는 것이 비전 중 하나입니다.

◆ 만민 찬양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는 찬양마저 세속화 돼가는 요즘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우고자 힘써 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 주셨듯(신 31:19, 22) 2009년부터 세계 만민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주셨다. 현재 150여 곡이 나와 있으며, 4집 앨범까지 발매됐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상 17:9~14)

가 오지 않았지요. 이 저주가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왕상 17:1)

그런데 아합 왕은 회개는커녕 하나님 뜻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릇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지요.

계속되는 가뭄에 그릇 시냇물까지 말라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왕상 17:9)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내게 보낼 터이니 너는 이렇게 공궤하라”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인의 마음을 주관해 엘리야를 공궤하도록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궤하도록 주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선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한편 엘리야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처럼 인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비된 그릇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들림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킬 수 있었지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로 물들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수백 명을 모으고 단신으로 대결했습니다. 단에 번제물을 놓은 후 각자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 어떤 신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우는가 하는 것으로써 참신을 가리고자 했지요. 결국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받아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일 엘리야에게에 까마귀를 통해서도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 2.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엘리야를 공궤한 사르밧 과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이르러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말합니다. 이때 순순히 물을 가져다 가는 여인을 향해 엘리야는 또다시 “청컨대 네 손에 딱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지요.

오랜 가뭄으로 물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음식까지 달라고 하다니 참으로 염치없는 부탁입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조금도 감정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도울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민망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딱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왕상 17:12)

만일 엘리야가 인간적 생각을 동원해 여인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답변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왕상 17:13~14) 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금보다도 귀한 양식을 달라고 했으니 엘리야 요청에 순종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자기 말대로 능력이 있다면 왜 나처럼 가난한 과부에게 양식을 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어떤 이유나 핑계도 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로써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 종을 신뢰하고 있고 마음이 선한지를 알 수 있지요.

## 3.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선한 중심을 아셨기에 많은 사람 중에 그녀를 택해 엘리야를 공궤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도 축복의 길이 열렸지요.

열왕기상 17:15~16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록한 대로, 극심한 가뭄이 다할 때까지 조금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의 선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베풀어졌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 더할 나위 없지만 각자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주의 종들을 비롯해 그 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 같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심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엘리야를 먹이실 수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보장받은 엘리야를 여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 여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었다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어떻게 엘리야 말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상대를 위해 베풀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엘리야 말대로 순종했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삼 년 반 동안의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에 참된 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행함으로 가뭄에도 아무 염려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드러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선을 행하는 빛의 자녀들이 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대부분 자신의 삶에만 급급할 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구한 일들이 알려지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인데도 오늘날에는 제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선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진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극심한 가뭄 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공궤하는 선의 행함으로 큰 축복을 받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과연 그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1. 이스라엘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왕과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죄를 범함으로 마침내 하나님 저주가 임했습니다. 즉 3년 반 동안 비



- 교회 주소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침반은 동서남북을 정확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비행사, 항해사, 등반가, 건축가 등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길을 잃지 않고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문서답'이란 동쪽을 물었다니 서쪽을 대답해 준다는 말로, '묻는 말에 대해 아주 딱딱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와 다른 대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와 이유를 대며 변명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를 찾아 진실한 마음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동문서답을 하면서도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아본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불리하고 밝히기 꺼리는 것이 있을 때 숨기고자 동문서답이 나온다. 나는 평소에 어떻게 답변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스스로 점검해 보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  
(마태복음 5:37)

Q : “어제 모임에 몇 명이나 왔어요?”

A : “홍보가 많이 안 됐나 봐요.”

Q : “그래서 몇 명이나 왔는데요?”

A : “많이 안 왔어요.”

정답 : “어제 ○○명이 왔어요.”

Q : “아들아, 너 지금 어디 있니?”

A : “예, 저 밖이에요.”

Q : “그래, 거기가 어디인데?”

A : “예, 친구들하고 있어요.”

정답 : “지금 ○○○에 있어요.”

Q : “옷이 참 예쁘네요. 새 옷이에요?”

A : “아, 이것 비싼 옷 아니에요.”

정답 : “예.” or “아니오.”

Q : “점심 드셨어요?”

A : “아,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정답 : “예.” or “아니오.”

## 1. 불필요한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상대의 질문을 집중해 듣지 않으면 흘러버리거나 자신의 생각과 잡념 속에 판단하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들으면 불필요한 생각이 꼬리를 물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문서답을 하게 된다.

만일 상대방이 세 가지 일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하자.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두 번째 질문을 놓치고 만다. 불필요한 생각을 차단하고 집중해서 들었어야 하는데 그 순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엉뚱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르기도 한다. 그러니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므로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2. 진실을 숨기고 싶기 때문이다

“요즘 기도는 몇 시간 하세요?”라고 묻는다면 “몇 시간 기도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요즘 바빠서 조금밖에 못하는데요.”라고 대답했다면 왜 그런 것일까? 이는 사실대로 대답하면 창피하고 민망하다 여겨 숨기려고 하다가 거짓말이나 엉뚱한 말이 나온 것이다. 당장의 어떤 민망

함과 죄송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나 이유를 대게 되고, 자신의 과오를 숨기려는 데서 동문서답이 나오는 것이다.

## 3. 이미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할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스스로 답을 내린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면 뒷사람 말입에도 불구하고 고자 하는 말만 한다.

이처럼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사심과 욕심이 있으면 동문서답이 나오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설령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어낼 것이 아니라, 상대 유익을 구하며 순종할 때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

## 4.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실수할 수도 있다.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면 그것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핑계대고 부인하며 남의 탓으로 돌려 동문서답을 한다면 잠시 위기를 모면한다 해도 언젠가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을 남에게 돌

리고 자신은 회피하려고 한다면 상대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 5. 시비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내게 오는 해를 참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동문서답이 나온다. 더욱이 좋은 일에 대해선 자신이 했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버려야 한다. 근본적으로 내게 오는 해를 받을 수 없다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 6.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잘못 이해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녕 그분을 신뢰했다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가 있을 거라 여겨 그 뜻을 물어보아야 한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영적 의미로 받아서 자신에게 적용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지만 육으로 받으면 동문서답이 나온다. 따라서 성경 충만한 가운데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

### TIP

#### ◆ 말하기 전 생각해야 할 3가지

말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기를 측량할 수 있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 아름답고 선한 입술이 되자.

####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혹시 전해 듣고 하는 말은 아닌지, 험간의 소문을 듣고 전하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한다.

#### 둘째,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설령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 해도 그 말을 굳이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셋째, '과연 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이 될까'

꼭 필요한 말이라도 내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고 모든 정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말이라 해도 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이 돼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천국의 푸르름이 느껴지는 6월!

June 6  
GCN Programming Guide

“천국을 소망하며 성결로 나아가는 시간, GCN이 준비한 충만한 프로그램으로 함께하세요.”

주요 프로그램

이재록 목사의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1~3'

이미영 목사의 '노력하는 삶'

해외성회 시리즈 '에스토니아대성회 종합편'

찬양프로그램 '찬양과 경배(3) 43~54'

GCN 특선영화 '사도바울'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및 A/S 문의

1577-2073

# “아들의 농가진과 제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잦은 불화와 사업 실패 끝에 이혼하셨기에 저는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 등 마음의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의 결혼 생활도 순탄치 못했지요.

버겁게 느껴질 때면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주지 못하는 내성적인 남편을 보며 마음의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힘들고 지치면 남편이 미웠고 불평불만을 많이 했지요.

## 세 살 난 아들에게 농가진이 발병해

그러던 어느 날, 세 살 난 아들 의인이가 나들이를 다녀온 후 얼굴에 열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마와 턱 부위에 물집이 생겼고, 가렵다고 긁어대니 눈썹과 코, 입 주변으로 번졌지요. 그간 의인이가 갑자기 장염 등을 당회장님 기도



이유미 집사 (2대대 10교구)

로 치료받은 체험이 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평소처럼 우리 교회 ARS(자동응답서비스)에 녹음돼 있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지요. 그런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내 저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깨우쳤습니다. 자녀의 질병은 부모로 인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6일, 정확한 병명을 알고자 병원 소아청소년과를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농가진으로 밝혀졌고, 전신으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입원 치료할 것을 권유받았지요.

이날 밤 금요일아침에 참석하신 저희는 설교를 들으면서 화목한 가정의 중

요성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짜증낸 일, 남편을 서운하게 생각한 일,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툰 일 등이 떠올라 철저히 회개했지요. 남편도 아내를 섬겨 주지 못하고 불화한 일들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 부부간 불화를 회개하니 치료 역사가 나타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2-3일 내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ARS(자동응답서비스)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지요. 그 후 아들의 손등과 사타구니까지 번진 농가진이 치료되기 시작하더니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의 농가진이 발병하기 3주 전인 3월 9일, 선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당회장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회장님께서 저희 부부의 믿음이 반석에 서지 못했다고 하시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영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회장님을 통해 저희들의 문제 해답을 알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릴 적 마음의 상처까지도 덤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3일, ‘감춰진 어두움’이란 주일 대예배 설교를 들은 저는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당회장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심방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꿈을 연이어 꾸었는데, 첫 번째는 검정색에 가까운 색의 옷들을 꺼져서 쌓으시더니 과거의 구습과 함께 버려야 할 것과 두 번째는 제 손을 꼭 잡아 주시면서 과거 상처받은 일들을 다 알고 있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손과 팔,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세 번째는 저보다 더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감사의 신앙을 소유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꿈을 꾸 후 놀랍게도 과거의 상처된 일이 떠올라도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농가진 치료는 물론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시며 가정의 행복을 안겨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Interview



##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재록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스승”

트로이 밀러 사장 (미국 NRB 네트워크 방송사)

NRB(세계기독교방송인협회)가 운영하는 미국 NRB 네트워크는 2005년 첫 방송을 시작한 신생 방송국입니다. 현재는 미국 전체 시청자의 33% 정도를 커버하고 있지만, 2015년도까지 100% 달성이 목표이지요.

저희는 주일 아침마다 이재록 목사님 설교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해외 성회 등 특별 프로그램도 방송합니다. 저는 이재록 목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스승이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NRB 네트워크에서는 주일에 아무 설교 프로그램이나 방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선별해 방송합니다.

2년 전, 저는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방송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예배 장면을 보고 ‘참된 복음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GCN 방송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방송이기에 미국인들이 꼭 시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변화에 따른 어려움과 기독교 메시지에 반대하는 무신론자 단체들의 압박도 있습니다. NRB는 라디오, TV, 인터넷, 활자 등을 통해 미국에서 복음 전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한 미국의 여러 정부 기관과 함께 일하며 기독교 방송국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방송되는 이 목사님의 성결 복음은 저희에게는 매우 귀한 메시지입니다. NRB 네트워크는 GCN 방송과 이재록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매우 값지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산만민교회 경기도 안산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북 괴성읍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사거리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1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지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2층) ☎033)261-4217, 010-7330-42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남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